

哲學이 없는 대학

張 日 祚

(韓神大 哲學科)

나는 해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나는 왜 哲學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물음과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과제를 주어 본다. 철학과에 들어온 학생이라고 무슨 특별한 대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철학에 관한 교양서적 한 권 읽지 않은 학생이 철학과를 지망한다는 것은 면접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확인이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전혀 배우지 않으니 당연하다고도 생각된다. 철학적인 분위기는 국민윤리 선생님들에게서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몇 사람의 哲學者 이름도 그들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예외가 없지는 않다. 책도 몇 권 읽은 학생들도 있고, 제법 말장난 같은 논리를 펴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외이다.

‘哲學이 없는 大學’이라는 말은 단지 대학 철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철학적 기초가 없다는 말만은 아니다. 이것도 문제다. 아니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다. 고등학교에 철학이 없으나 대학에 철학이 있을 수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미약하다. 철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분야는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이나 배우는 셈인데, 철학만은 대학에 갈 때까지 배우는 것이 없다. 대학에 가서도 교양과정에서 한 학기 정도 배우고 그만이다.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야 비로소 시작이다. 다른 인문·자연·사회과학 분야에 포함된 기초과학들에 비하면 철학은 그 기초학습이 12년이나 늦어지는 셈이다. 옛날부터 철학을 ‘晩學의 學’ 또는 ‘학문의 학문’이라고 불려 왔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고상하기 때문에 철이 들어서야 할 수 있다는 배려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현대를 지배하는 現實主義的 傾向이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을 망각하고 거절하는 ‘현실주의적 경향’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총체적인 의미에서 ‘리얼리즘(realism)’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많은 차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 그 많은 내용을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뜻은 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이 말은 정신과 물질의 양극에서 볼 때 物質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를 정신으로 보느냐 물질로 보느냐 라는 고전적이고 단순화된 관점에서 물질로 보는 모든 唯物論이 여기에 속한다. 당연히 이러한 유물론적 存在論은 거기에 걸맞게 물질적 존재와 짝을 짓고 있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認識論을 동반한다. 이것은 아마도 철학적인 의미의 리얼리즘일 것이다. 리얼리즘적 정신과학의 학문이론은 여기에 포함된다.

자연과학에서는 물질의 기계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성을 절대화하는 관점인데 이러한 관점의 진리에 대해서는 자연과학 자체가 의문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기계적 물질의 체계가 그것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주체인 思惟하는 인간에 대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문제가 결국 자연과학적 리얼리즘의 운명을 좌우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사회과학에서의 리얼리즘은 사회존재 자체를 객관화된 물질적 성격으로 보고, 인간은 그 안에서 결정되어 간다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그것을 대표한다.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바로 이 사회적·역사적 리얼리즘인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가장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존재는 社會·歷史的 存在論이고, 그러한 존재의 인식은 集團的 社會意識을 통한 大衆輿論이며, 추구하는 미학적 가치는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인식의 통합에서 기대되는 社會的 人間의 ‘社會的 解放’이다.

나는 여기서 이른바 맑스주의적 社會主義 리얼리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資本主義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라는 사회적 범주는 철학적으로 볼 때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물질의 생산과 분배와 소비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세계를 거절하고 물질세계로 넘어 갔다거나,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감성적·감각적 인식으로 넘어 갔다거나, 소유하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으로 넘어 갔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무 다름이 없다. 역사적·사회과학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관적·철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육체가, 생물학적으로 허용된 100년 동안의 생존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관점에 리얼리즘은 그외 인문·자연·사회과학의 學問理論(Wissenschaftstheorie)을 자기도 모르는 無意識 가운데 얽매어 놓고 있다. 이것이 아마 모든 동물 혹은 생물들에게 내재한 무의식적 自然性 혹은 本能일 것이다. 리얼리즘은 온갖 정신적 환상과 가능성을 날려버리고 ‘피와 살’에 와서 쓰라리게 부딪치는 최후의 生物學的 事實에다가 인간의 삶의 根據를 定礎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한다.

사회적·역사적 리얼리즘이 비록 개인적 리얼리즘보다 그 지평이 확대되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그것이 리얼리즘인 한에 있어서는 인간의 感性和 物質的 對象의 일치에서만 미학적 가치로서의 充足이 가능할 것이므로 물질적 대상세계 일반적으로부터의 인간의 독립된 능동성이나 자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태는 고전적인 경험론의 존재론과 인식론이 對象 中心的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은 거기에 늘 피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던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름없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리얼리즘적 세계관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인간정신이 理性으로부터 感性으로 이행한 근대 이후의 인간들에게 열렬하게 환영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리얼리즘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限界點에 직면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하나는 感性和 결합하는 物質的인 것의 社會·歷史的 危機이다.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自然이 더이상 그러한 감성적 존재의 생물학적 생존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역사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자연의 과도한 人間中心化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자연조건이 파괴가 그것이다. 생태계와 자연조건이 파괴되면 物質的 對象들으로써 欲望充足을 요구하고 있는 感性的 人間은 더이상 그 방향에서 손을 뻗을 여지가 없다. 인간은 物質的 條件에서 제한되어 있는 하나뿐인 綠色의 地球 위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녹색이 파괴되고 變色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生物로서의 인간의 生存限界이다. 또다른 하나는 인간이 感性的이기 이전에 理性的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감성은 대상을 具象化하지만, 이성은 대상을 抽象化한다. 이성의 이러한 성격을 우리는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철학의 地平이 열린다. 특히 물질적·자연적 대상이 인간에게 한계로 다가오는 오늘에 와서, 한사코 물

질적 대상에만 감각적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感性的 인간을 그러한 죽음의 盲目性에서 삶의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성의 抽象化의 기능을 새로이 주목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을 철학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본래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감성적인 존재인 까닭에, 감성적 한계에 직면한 오늘의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다시 그의 理性的 本性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밖에서 잃으면 안에서 찾는다는 인간의 彈力性이다. 인간이 감성적이지만 잃고 이성적이기도 하다는 것도 바로 인간존재의 이러한 탄력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이러한 성격은 이미 哲學의 人間學에서 명백히 규명되고 파악되어 왔던 바이다. 이성적 본성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리얼리즘에 얽매어서 역사의 퇴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역사란 정신과 자연의 양극적 조건 안에서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그 진보와 퇴보를 가늠하는 잣대는 그의 생물학적 생존(Überleben)과 정신문화적·가치의미론적 생활(Leben) 사이에서 그의 총체적 존재를 획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 생존하면 육체가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생활하면 영혼이 만족한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러한 영혼과 육체의 二元性을 가진 존재이기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補完하고 統全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 존재의 방향은 100년의 짧은 육체의 생물학적 생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멸하는 영혼에 있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든 위대한 교전철학, 위대한 세계종교, 위대한 예술이 이날까지 그것을 말해오고 있지 않은가? 이보다 더 명백하고 객관적인 啓示와 證明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한사코 정신이 아니고 물질이며, 신은 없고 인간이며, 來世는 없고 現世뿐이며, 인간은 영혼이 아니고 육체이며, 육체적 생존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우겨대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사코 인간의 사회와 역사가 이것을 중심축으로 하여 돌아가도록 強制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정신·자연·사회과학의 학문이론(방법론)을 리얼리즘적 준거에 조준할 필요가 무엇인가? 정신과 물질의 양극적 大宇宙 사이에서 영혼과 육체로 뭉쳐진 小宇宙인 人間이 리얼리즘에 사로잡힐 때 그가 물질과 육체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세계관적 전망으로는 리얼리즘의 운명도 이제 더 이상 낙관적이지 않다. 한편으로는 自然의 생태적 오염과 파괴,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물질적 자연과 결합되는 인간의 감성-理性的 人間을 파괴하는—의 한계가 그것이다. 이제 당분간 돌파구를 찾으려고 발버둥쳐 보겠지만, 결국 인간은 理性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성은 다시 세계전체를 구성하는 精神으로 넘어 갈 것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것을 떠받치는 물질적 자연이 파괴되는 데는 더 갈 데가 없고, 주어진 100년을 잘 산다 해도 정신과 결합된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 존재의 본질상 생물학적 일생에만 만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不滅을 그리워하는 영혼은 세계정신과 하나로 통합되려고 한다. 그런데 인간존재와 그 운명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철학없는 대학'의 책임이 크다. 세계관은 철학이 담당하고, 대학에서는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위대한 古典들은 바로 이 次元과 境地를 眞理의 것으로 指示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학이 과연 이러한 '眞理를 위한 學問'(세계관의 철학)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리얼리즘적 이데올로기에 도구적·기능적으로 봉사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경제학, 첨단산업 입국을 위한 고도 과학기술 공학, 21세기를 위한 역사주의적인 꿈, 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미래학, 세계사회를 지배하고 주도하기 위한 세계전략 정보과학이 여전히 리얼리즘적 광기에 사로잡힌 채 그것도 학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대학이 아니라 기능·기술학교이다.